

2022-11-28 (2022-42호)

11월 28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낮은 유동성과 위안화 변동성 리스크

서울, 11월2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은 28일 위안화 행보를 주로 살피면서 최근의 높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주말 역외거래에서 달러/원 NDF 1개월물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약 12원이나 높은 1,330원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뉴욕 금융시장이 추수감사절로 조기 휴장한 가운데 글로벌 달러 움직임 역시 제한적이었지만 위안화 약세가 부각된 영향을 받았다.

중국인민은행은 25일 올해 두 번째로 은행 기준율을 25bp 인하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이 조치로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5천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 정책 관련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역외 달러/위안이 7.2위안대로 상승한 가운데 이날 중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발표 이후 위안화 약세가 추가 진행될지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 유동성이 험거워지는 여건에서 위안화 약세가 재점화된다면 원화 약세 탄성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지난 주말 환율은 증공업체 추정 달러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낙폭을 대거 늘렸다. 시장의 양방향 버퍼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수급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안화 재료가 변동성을 더욱 자극할지 주목된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1월28일(월)

-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07:3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10: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10:3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 (12:00)

11월29일(화)

- ⊙ 기획재정부: 2022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10:00)
- ⊙ 금융위원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 (12:00)
- ⊙ 한국은행: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4:00)
- ⊙ 한국은행: 2022년 21차(11.10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 한국은행: 2022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11월30일(수)

- ⊙ 통계청: 2022년 10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한국은행: 2022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2.11 -논고: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 (12:00)
-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2. 11) (12:00)

12월1일(목)

-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1월 수출입 동향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 (09:30)
- ⊙ 금융위원회: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간담회 (11:30)
- ⊙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2:00)
- ⊙ KDI: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00)

12월2일(금)

- ⊙ 통계청: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2:00)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1월28일	18:00	유로존	총 유동성(M3) 증가율	10월	6.2%	6.3%
11월28일	18:00	유로존	가계대출	10월		4.4%
11월29일	00:30	미국	달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11월		-19.40
11월29일	08:30	일본	실업률	10월		2.6%
11월29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10월		4.5%
11월29일	19: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11월		0.76
11월29일	19: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11월	93.5	92.5
11월29일	19: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11월	-23.9	-23.9
11월29일	23:00	미국	FHFA 주택가격 YY	9월		11.9%
11월29일	23: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YY	9월		13.1%
11월30일	00: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1월	100.3	102.5
11월30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10월		-1.7%
11월30일	10:30	중국	NBS 제조업 PMI	11월		49.2
11월30일	10:30	중국	NBS 서비스업 PMI	11월		48.7
11월30일	14:00	일본	건축주문 YY	10월		36.6%
11월30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10월		1.0%
11월30일	19:00	유로존	CPI NSA	11월		121.07
11월30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25일 주간		209.8
11월30일	22:15	미국	ADP 전국고용동향	11월	203k	239k
11월30일	22:30	미국	기업이익 잠정치	3분기		6.2%
11월30일	22:30	미국	GDP 수정치	3분기	2.8%	2.6%
11월30일	22:3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10월		0.6%
11월30일	22:30	미국	소매재고 수정치	10월		-0.1%
11월30일	23:45	미국	시카고 PMI	11월	47.3	45.2

12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1월		1,194.6B
12월1일	00:00	미국	잠정주택판매지수	10월		79.5
12월1일	08:50	일본	기업설비투자 YY	3분기		4.6%
12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치	11월		49.4
12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11월		49.2
12월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11월		29.9
12월1일	18: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11월	47.3	47.3
12월1일	19:00	유로존	실업률	10월	6.6%	6.6%
12월1일	21:30	미국	채리저해고건수	11월		33.843k
12월1일	22:30	미국	개인소득 MM	10월	0.4%	0.4%
12월1일	22: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10월	0.3%	0.5%
12월1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21일 주간		240k
12월1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치	11월		47.6
12월2~6일	00:00	미국	자동차 판매	11월		3.230M
12월2일	00:00	미국	건설지출 MM	10월	-0.2%	0.2%
12월2일	00: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11월	50.0	50.2
12월2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10월	-2.0%	1.6%
12월2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11월	200k	261k
12월2일	22:30	미국	실업률	11월	3.8%	3.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28일(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 청문회 참석 (오후 11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화상 행사 참석 (29일 오전 2시)

11월30일(수)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소규모 은행의 미래" 행사 참석 (오후 10시50분)
- ⊙ 리사 쿡 연준 이사,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주최 행사서 연설 (1일 오전 2시3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 연설 (1일 오전 3시30분)
-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1일 오전 4시)

12월1일(목)

- ⊙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 행사 연설 (오후 3시)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델러스브레이크패스트그룹 주최 행사 Q&A 세션 참석 (오후 11시25분)
- ⊙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KBW 최고경영자 전략 포럼 참석 (오후 11시30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인디안사회발전연구센터 서밋 개회사 (2일 오전 1시)
- ⊙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미국기업연구소(AEI) 연설 (2일 오전 5시)

12월2일(금)

- ⊙ 민좌홍 한국은행 부총재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류쿤 중국 재정부장, 아사카와 마사츠크 ADB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등 아세안+3 포럼 연설 (오전 9시)
-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은 주최 연례 경제전망 심포지엄 개회사
-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카우프만센터 행사서 연설 (3일 오전 0시15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11월 고용 지표

오는 12월2일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1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20만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0월에는 26만1,000명 증가한 바 있다.

지난 여섯 차례 고용 보고서 중 다섯 번은 월별 취업자 수가 전망을 상회한 가운데 이번에도 견실한 지표가 나온다면 연준 긴축 지속 전망이 확대되며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코로나 확산과 PMI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그에 따른 억제 조치 강화는 내년 1분기 중국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축소시켰다.

다만, 중국인민은행의 부동산 부문 지원 방안 마련 등 일부 긍정적 소식들이 주식시장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다.

중국은 25일 장 마감 후에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은행 기준율을 25bp 인하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 발표되는 중국의 11월 공식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도 관심거리다. 내달 1일에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도 발표된다.

⊙ 유로존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고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니 유로존 물가 상승세는 아직 크게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오는 30일 발표될 유로존 11월 물가 상승률(HICP)은 전년 동월 대비 10.4%

로 전달(10.6%)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 2%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루이스 데 킨도스 ECB 부총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CB는 지난 두 차례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각각 75bp 인상했고, 시장은 오는 12월 회의에서의 75bp 추가 인상 가능성을 80%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 불안한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FTX 파산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암호화폐 대출 업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21일 파산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당장은 파산 신청 계획이 없다"면서 채권자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며 비트코인은 2년 만의 최저인 1만5,479달러로 하락했다.

◎ 누가 맨유의 새 주인이 될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유나이티드(맨유)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찾고자 구단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맨유 인수에는 맨유의 오랜 팬인 영국의 부호 짐 랫클리프와 왕년의 맨유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포함된 컨소시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 24일에는 애플도 맨유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맨유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만 40% 이상 급등했다.

거의 70억파운드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맨유 구단이 미국 글레이저 가문의 손을 떠나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진짜 시험대 선 한은 조사국과 '한국식 포워드 가이드스'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월2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국식 포워드 가이드스'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가속화 전망으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한 지난 10월 급하게 올해 두 번째 빅 스텝을 단행한 후폭풍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 총재는 포워드 가이드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포워드 가이드스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이 총재가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5%대 물가 상승 전망과 또 뒤틀린 포워드 가이드스

하지만 11월 금통위 결과를 복기해 보면 포워드 가이드스의 한계가 또 한 번 드러났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 총재의 포워드 가이드스는 지난 7월 이후 네 번의 금통위에서 모두 조금씩 틀어졌다.

7월에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 상황에선 경기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거시경제 운용에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엔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 경로가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5%대 물가가 지속된다면 현재의 기조(베이비 스텝)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책 초점을 물가 정점 여부에서 물가 하락 속도로 슬그머니 옮긴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6%대에서 5%대로 낮아지고 국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던 10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이 총재는 '원래 연준의 통화정책이 기본 전제였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5%대 지속 여부가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쪽으로 포워드 가이드스를 꺾은 바 있다.

11월 초에도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물가 상승률 5%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급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일찍 5%대에서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 역시 11월과 12월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져 4%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총재는 기저효과 때문에 연말까지 물가가 예외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수준이 아니라 기조를 봐달라"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9월까지 2%대 초·중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10월에 3.2%로 급등한 후 11월에 3.8%로 추가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물가의 경우 정부의 통신비 지원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저효과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저효과를 반영하고도 이달 초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고 했던 게 한은이고 이 전망이 포워드 가이드스의 근간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은은 겨울로 다가가면서 유럽발 가스 가격 급등 사태가 다시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물가 경로를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다. 유럽 날씨가 예상보다 따뜻한 데다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영향으로 수요가 줄었고, 가뜩이나 겨울 대란 우려로 재고를 최대 저장량 수준까지 쌓아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발 수요 둔화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에너지 가격 하방 압력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 금통위 당시 1,427원대였던 평균 환율이 100원 가까이 떨어진 부분도 향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한은의 물가 전망이 어긋나면서 포워드 가이드의 골대가 살짝 움직인 셈이다.

▲한은의 물가 상방 편향 극복과 포워드 가이드의 명운

주목할 건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성명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은 총재를 비롯해 집행부가 연말까지 4%대 물가 상승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통방 문구에선 5% 수준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5% 수준이라는 게 4%대일 수도 있고 5%대 일수도 있는 중의적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선례와 투명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이 총재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4~5%대 물가 상승률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았나 싶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 수준까지 기초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하향 추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4.99%냐 5.01%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포워드 가이드의 움직이는 골대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결국 전망에 대한 신뢰일 것이다.

결국 향후 물가가 한은의 전망대로 움직일 것이냐가 관건이다.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4%대로 낮아진다고 해도 내년 1월, 2월에 다시 5%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향후 공공요금 인상과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 가스 요금이 지난 7월과 10월에 이미 두 차례나 인상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바 있다. 한전, 가스공사 등의 대규모 적자 사태에 직면한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며 물가 하락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은 조사국은 포워드 가이드의 명운까지 쥔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 게 싶다.

사실 지난 2010년 이후 한은 물가 전망의 상방 편향은 비밀이 아니다. 한은은 2010년 이후 매년 물가

계측치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저물가 장기화의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한은은 2015년 이후부터 관리 물가에 따른 왜곡 문제를 들고나왔다. 정부의 규제 아래 있는 관리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구조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한은은 저물가의 구조적 원인을 전향적으로 연구하면서 이전과 다른 스탠스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체인 교란과 함께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와 리오프닝 관련 동향으로 경제 전망이 수렴했던 2020년과 2021년 한은의 경제 전망은 그 어느 때 보다 정확도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의 경제 영향력이 사그라든 2022년 들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은이 지난 10년간 보여왔던 물가 전망의 상방 편향을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숫자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은 경제 전망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는 결국 포워드 가이드를 끌어안고 가려는 이 총재에게도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듯하다.

(편집 유춘식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신흥시장 반등론 솔솔...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11월24일 (로이터) -

올해 들어 침체됐던 신흥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금리 인상 움직임이 안정되고,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등 경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투자은행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UBS는 신흥시장 증시와 채권의 총 수익률이 올해 -15~-25%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8~1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도 신흥시장 지역통화표시 채권 수익률이 근 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최신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 따르면 신흥시장에 대해 롱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역발상 투자(contrarian trade)로 여겨졌다.

사미 무아디 티로프라이스 신흥시장 담당자는 "이제 (신흥시장의) 가격은 역발상 투자를 할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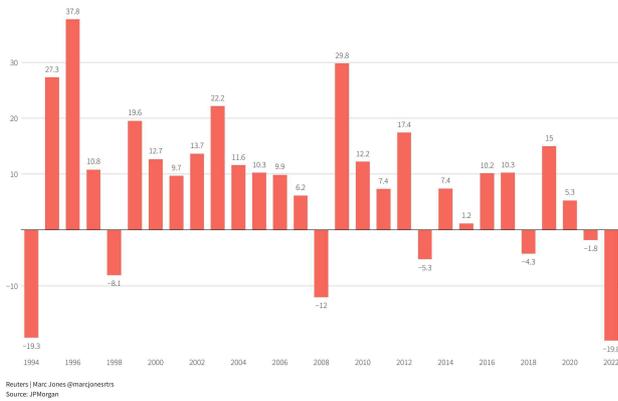
올해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신흥시장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신흥국 경화(hard currency) 채권 수익률은 약 -20%, 신흥국 지역통화표시 채권 수익률도 -15%로 각각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빌 캠벨 더블라인 펀드매니저는 "올해는 매우 힘들었다"면서 "최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최악 중에 하나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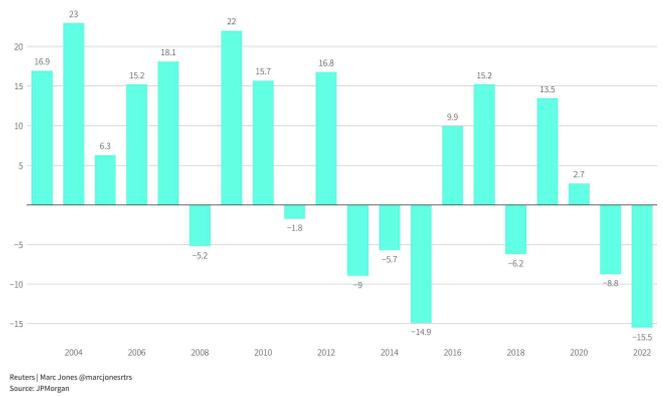
SUBMERGING MARKETS

JPMorgan's EM 'hard currency' debt index on course for worst total return drop on record



"LOCAL CURRENCY" DEBT WOES

JPMorgan's emerging market local debt index has lost investors over 15% on total return basis this year



그러나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사례를 돌아보면 최근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경험적인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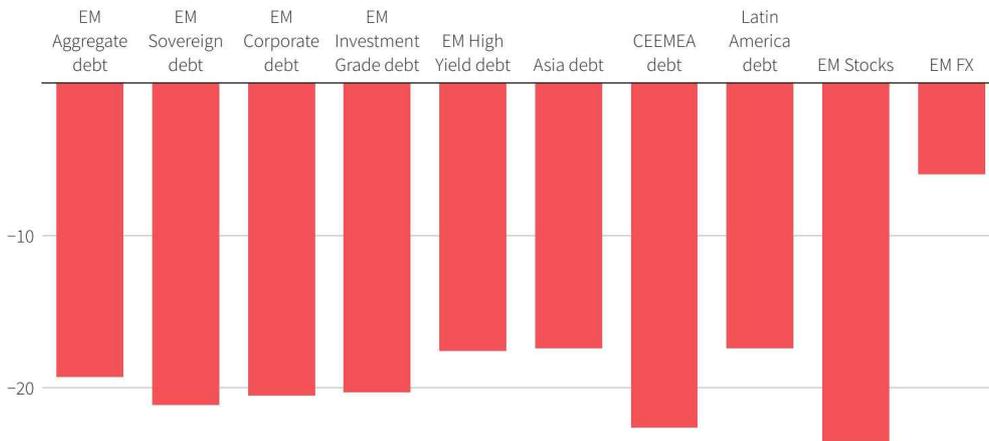
MSCI 신흥시장주가지수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4%,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5% 각각 급등한 바 있다.

신흥국 경화 채권 수익률도 금융위기 때 -12%에서 다음 해 30%로 치솟은 바 있다.

캠벨 펀드매니저는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신흥시장에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ubmerging markets

Emerging market sovereign debt and stocks have both lost more than 20% this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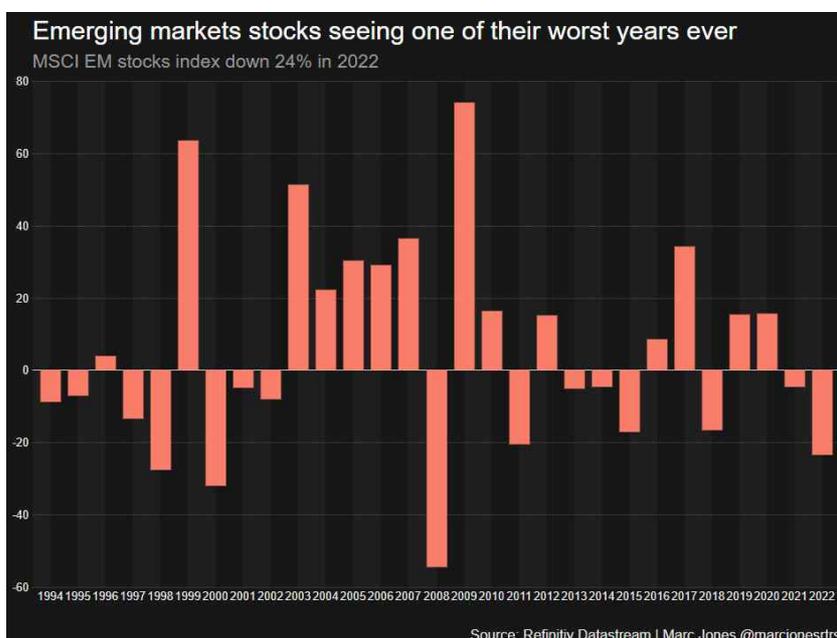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Source: JPMorgan for bond indices and MSCI for stocks and FX indices

소시에떼 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2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선진국 시장 경기침체가 압박함에 따라 "신흥시장 지역 채권이 선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흥시장이 랠리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은 작년 이맘때에도 대부분의 대형 투자은행들에서 똑같이 나왔던 말이다. 그들 중 아무도 우크라이나 사태나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견하지 못했다. 신흥시장을 수년 동안 담당해온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은행들이 신흥시장이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연례 행사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인다.

2019년 BofA의 12월 투자자 서베이에는 달러에 대해 숏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두 번째로 유력한 투자 방식일 것이라고 나타났고, 모간스탠리는 이때 신흥시장에 전격적으로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후 달러는 근 7% 하락했고, 신흥시장 증시와 채권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줬다.



신용 평가사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증가하는 부채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파키스탄, 튀니지 같은 국가들에서 디폴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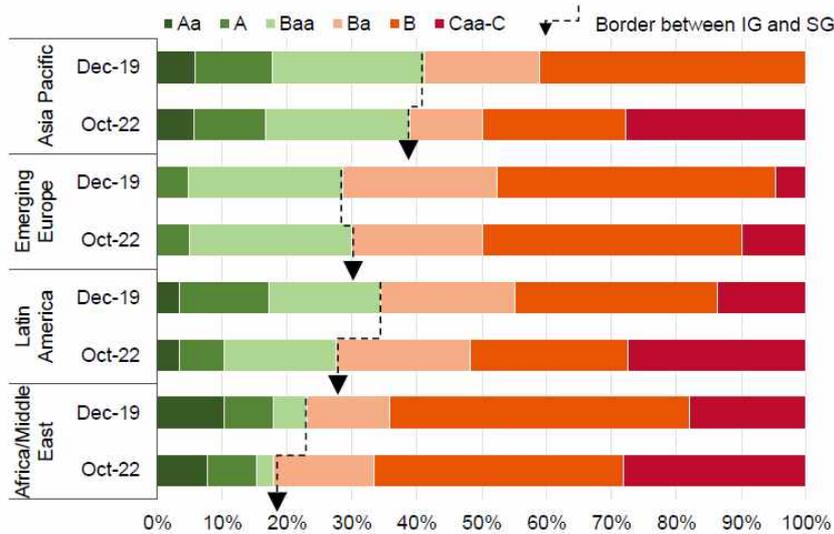
노무라는 통화위기가 찾아올 7가지 잠재적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신흥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UBS조차도 올해 (신흥시장의) 외환보유고가 1997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UBS는 "우리의 희망은 연준의 긴축 완화와 아시아 기술기업들의 회복이 함께 진행되면서 신흥시장 약진을 위한 경제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신흥시장 전망이 실제로 밝은 것이라면, 투자자들은 다시 뛰어들기에 좋은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JP모간은 신흥시장 채권에서 올해에 약 860억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긴축 발작' 시기 대비 네 배이다.

모간스탠리는 "신흥시장은 아직은 깊은 물속에서이지만 안전한 쪽으로 헤엄치고 있다"고 말했다.

Rating deterioration of EM sovereigns indicates higher credit risk at the lower end of the rating scale
EM rated sovereigns, by region



(권오신 기자)

((Ohshin.Gw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2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23.7	1.3%	-10.2%	-8.6%	유로	1.0397	0.7%	-8.6%	-6.9%
100엔 대비	960.0	-0.6%	7.6%	+1.8%	엔	139.12	0.9%	-17.3%	-10.3%
유로 대비	1,388.6	-0.4%	-2.7%	-1.9%	위안	7.1635	-0.7%	-11.3%	+2.7%
위안 대비	186.39	1.0%	0.3%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347.03	1.8%	-5.5%	+18.7%
코스피	2,437.86	-0.3%	-18.1%	+3.6%	나스닥	11,226.36	0.7%	-28.2%	+21.4%
코스닥	733.56	0.2%	-29.1%	+6.8%	S&P500	4,026.12	1.5%	-15.5%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494.23	0.1%	-21.5%	-4.9%
국고채 3Y	3.644%	-14.3bp	184.6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670%	-18.0bp	165.9bp	+67.6bp	미국채 2Y	4.470%	-6.0bp	374.0bp	+61.0bp
국고채10Y	3.623%	-17.8bp	137.3bp	+53.7bp	미국채 10Y	3.690%	-14.0bp	21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76.55	-4.4%	1.5%	+55.8%	한국 5Y	51.6bp	-2.4bp	29.5bp	-0.7bp
금(현물)	1,756.44	0.4%	-4.0%	-3.6%	일본 5Y	30.3bp	0.1bp	12.7bp	+2.1bp
TR상품지수	3,313.34	-1.8%	-0.8%	+24.6%	중국 5Y	76.2bp	-7.9bp	35.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